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 1 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 주 현 · 조 금 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심리학*

The Effect of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Part I : Emphasis on the Effect of Form and Color of Cloths

Joohyeon Lee · Geung-Ho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Sogang University*
(1995. 5.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impression formed of a female figure, 2) to analyze effects of several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of the figure in suit.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a response scale. The stimuli consisted of 60 drawings made by identical manipulations of 3 independent variables in 3 clothing styles(suit, dress and pants with blous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five clothing colors (red, blue, yellow, white and black), (2) two lengths(short/long) of suit skirt, dress, and pants (3) two types of blouse and dress collars (shirt collar/ribbon collar). Th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 scale to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s (formed impressions of the female figure) was composed of 37 bipolar adjectives. Furthermore, two open-ended questions were used for interpretation of the responses. The study proceeded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al part was based on the 3 clothing styles using a 5(color)×2(length)×2(collar) factorial design. Subjects were 20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20 combinations in each part of the experi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3-way ANOVA and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Five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impression of the female figure in specific attire. These factors included three basic dimensions of impression identified as potency, activity and evaluation, confirm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sult from open-ended questionnaire supported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Schneider, Hastorf and Ellsworth on the procedure of impression formation.

The length of suit skirt was the most influential element in suit design and the 2nd most important one was the color of suit.

I. 서 론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대인지각에 있어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로 작용하며¹⁾ 의복의 몇 측면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²⁻⁴⁾.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의복 내의 한 개 측면만을 독립변인으로 다루었으며, 의상디자인의 요소와 같은 의복 내의 세부적 측면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오지 않았다.

한편 Asch⁵⁾는 어떤 사람이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지각자에게 제시하고 이들이 지각한 인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Asch의 이러한 연구는 인상형성 분야의 고전적 실험 패라다임(paradigm)이 되어 후속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형용사보다 실제 인상형성에 더 가까운 정보인 의복을 지각자에게 단서로 제공하여 인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의복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Asch의 실험 패라다임에 의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이 지니는 중요성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의상사회심리학분야와 의상디자인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은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규명한다.

<연구 목적 2> 의상디자인요소들은 suit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1) 의상디자인요소들은 suit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2) 의상디자인요소들은 dress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3) 의상디자인요소들은 pants-blouse 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3> 의상디자인요소들 중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요소인가를 알아본다.

이 중 <연구 목적 1>과 <연구목적 2-1>에 관해서는 제 I보에서, <연구 목적 2-2>, <연구목적 2-3>과 <연구목적 3>에 대해서는 제 II보에서 각각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도출

1. 인상형성 과정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은 다양한 단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chneider등⁶⁾은 6개 단계의 인상형성과정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주목(attention) 단계로서 이때에 활용되는 지각의 단서는 외모, 행동, 맥락이며 이 단계에서는 입수된 정보와 단서들을 선택 및 유목화한다. 제 2단계는 즉각적 판단(snap judgement)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즉각적 정서반응(호감, 매력, 거부감 등) 또는 고정관념에 따른 판단을 한다. 제 3단계는 원인귀속 단계로서 피지각자의 행동단위가 특히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며, 이 단계의 지각결과는 피지각자의 성격특성, 의도, 태도 능력 등에 대한 원인귀속이다. 제 4단계에서는 피지각자가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 기타 성격특성을, 제 5단계에서는 피지각자에 대한 전반적 판단 및 평가를 내리게 된다. 제 6단계에서는 선행단계의 모든 지각결과를 단서로 활용하여 피지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예측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복은 외모 및 행동과 더불어 인상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며, 이 초기단계의 지각 결과는 후속단계의 지각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복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

Lennon과 Davis⁷⁾는 의복과 사회적 지각의 연구 분

야에서 지각자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인상을 형성할 때에 갖게 되는 지각의 표준차원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amhorst⁸⁾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109개 선행연구들을 내용분석한 결과, 의복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인상형성 내용의 주류를 이루는 평가, 역능(力能), 역동성 등은 Osgood, Suci, Tannebaum⁹⁾의 의미미분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Kaizler-Evans와 Damhorst¹⁰⁾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모습을 담은 자극물을 지각하게 한 후 이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구조를 얻었다. 남·여 지각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차원은 신뢰감-유능함, 반발성, 시각적 자극성, 명랑함, 활발함, 개방성 등이었고, 이 중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신뢰감-유능함 차원으로 나타났다. Delong과 Larntz¹¹⁾는 의복착용자의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고 의미미분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의복착용자의 인상에서는 평가, 활동성, 복잡함, 실용성, 역능, 기타의 차원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평가차원이었다.

박혜선¹²⁾의 의복에 관련된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한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은 평가, 활동, 역능 요인과 그 외의 2개 요인이었으며 이 중 평가요인의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다. 강혜원⁴⁾의 4개 의복 유형(정식, 약식의 한복/양복)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연구결과에서는 평가, 능력, 품위, 동조성, 친화, 화려함-검소함 등 6개 차원이 도출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Osgood등⁹⁾에 의해 밝혀진 인상의 3대 차원(평가, 능력, 활동성)들은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비교적 일관성있게 발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의복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1) 의복유형의 영향

Paek¹³⁾은 4개 의복유형 착용자의 그림(얼굴, 발은 제외됨)을 지각자에게 자극물로 제시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지성적이라고 지각된 사람은 보수적 유형(suit)의 착용자였으며, 가장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지각된 사람은 dressy한 유형(dressy와 여성적인 suit)의 착용자였고, 대담한 유형의 착용자는 가장 성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으나 가장 매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

람으로 지각되었다.

강혜원⁴⁾의 4개의 의복유형(정식, 약식의 한복 및 양복)과 3개의 사회적 상황(학교, 직장, 모호한 상황)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이를 남·녀 의복착용자에 각각 적용시킨 자극물을 지각자에게 제시한 후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의미미분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의복유형은 상황에 비하여 착용자의 인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두 한복착용자는 두 양복착용자보다 더 품위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양복착용자들은 한복착용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의복색채의 영향

색(color)은 색상, 명도, 채도 3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채란 색상에 명도와 채도가 혼합된 개념이다. 색을 표시한 색체계 이론으로는 Munsell 표색계, Ostwald 표색계, Prang표색계등이 있다.¹⁴⁻¹⁶⁾

색의 상징성 및 색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빨간색은 태양, 불, 피를 연상케하며 따라서 생명, 활동, 건강, 정열의 상징이다. 파란색은 하늘, 바다, 청춘, 청년을 연상케하며 희망의 상징이다. 노란색은 젊음, 빛의 상징이고 쾌활한 색이며 다른 색과 비교하면 경박하거나 냉담해 보일 수도 있다. 하얀색은 순결, 신성, 청초함의 상징이며, 의복에 사용될 경우 재질이나 배색,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서 값싸게 보이거나 무미건조하게 또는 불결하게 보이기도 한다. 검정색은 신비, 정적, 엄숙성의 상징이며, 의복에서는 침묵, 불길, 슬픔의 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검정색은 사용방법에 따라 고상한 의복색이 되기도하고 음침하거나 나이는 사람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14,16)}

Mahannah¹⁷⁾는 의복의 빨강, 파랑 색상과 의복착용자의 가발색(금발, 흑발)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두 독립변인이 피지각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Yin-Yang의 성격특성은 가발색과 의복색상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빨간색 의복색상에 흑발이 조합되었을 때에 피지각자는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yang)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강혜원과 고애란¹⁸⁾은 여대생과 중년여성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복의 디자인과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복의 현대적/전통적 배색은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지 저고리 색을 통제할 경우에 현대적 배색 방법은 인상 중 현대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적 배색은 여대생

집단에서만 평가·품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4. 연구의 가설

이상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제 I보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a>의 검증만을 다루고자 한다.

<가설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은 평가, 능력, 활동성 차원을 포함한 몇 개의 차원들로 구성되어있을 것이다.

<가설 2>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은 suit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은 dress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은 pants-blouse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현장에서 실시한 준실험연구법(quasi-experimentation)이며 2회의 예비실험과 3개 부분로 구성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독립변인이 조작된 자극물(의복착용자 모습의 그림)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것이다.

IV.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복 착용자: 자극물 속에 등장하는 의복을 입은 인물로서 편의상 '착용자'라고도 칭한다.

2) 관찰자 또는 지각자: 실험의 피험자로서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을 응답한 사람

3) 의상디자인 요소: 의복의 디자인 요소중 의복의 선 및 형태에 해당되는 하의길이와 칼라유형, 그리고 의복 색채를 의미한다.

4) 의복 색채: 검정, 흰색, 빨강, 파랑, 노랑 등 5개 색을 의미한다.

5) 하의(下衣)길이: suit의 스커트 길이, one-piece

dress의 길이, pants의 길이등을 의미하며 편의상 하의 길이라고 총칭한다.

6) 인상의 차원: 관찰자가 의복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의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들

7) Pants-blouse 착용자: 하의로는 pants를, 상의로는 리본 칼라 또는 셔츠 칼라의 blouse를 함께 착용한 피지각자를 의미한다.

V. 예비실험

예비실험의 목적은 실험도구의 개발과 본 실험을 위한 예비자료수집에 있었다.

1. 기초자료 조사

1) 형용사쌍의 수집과 선정

선행연구들과 전문가집단의 자유응답결과로부터 의복을 묘사하는데에 사용되는 75개의 형용사 쌍을 수집하였다. 43명의 판정자집단에게 의복착용자의 모습을 담은 자극물을 제시하고 75개 형용사쌍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는 데에 적절한 정도를 5점 유사등간 척도에 응답하게 한 결과, 적절성 점수범위의 중앙치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54개를 택하였다.

2. 1차 예비실험

1차 예비실험은 임의 표집된 31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89년 7월에 실시되었다.

1) 실험도구개발

1차 예비실험의 자극물 내에서 조작된 독립변인은 의복유형(suit, dress, pants-blouse)이었으며 자극물의 색채는 흑백으로 통제되었다. 1차 예비실험의 독립변인을 의복유형으로 선정한 이유는 의복유형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의복의 단서라는 선행연구 결과들^{4,13)}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의미미분척도에서는 1차 예비실험결과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7개가 제외된 총 47개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2) 실험결과

Scree plotting을 통하여 얻은 타당한 요인수는 5개였으며 능력-활동성, 성숙함, 외모 평가, 깔끔함, 화려함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의복유형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5개 요인을 종속변인

<표 1> 1, 2차 예비실험 결과의 요약

1차 예비실험 결과			2차 예비실험 결과				
설명력 ^a	인상의 차원들	의복유형의 영향	설명력 ^a	인상의 차원들	의복유형의 영향	색채의 영향	의복유형, 색채의 상호작용
28.1%	능력-활동성	*	25.6%	능력-활동성	*		
13.7%	성숙함	*	13.6%	품위	*	*	
11.4%	외모-평가	*	6.6%	매력-화친 평가	*		
4.2%	깔끔함		3.8%	깔끔함-호오 평가		*	*
2.7%	화려함	*	11.1%	주의집중성	*	*	

* : 변량분석 결과에서 유의적 영향이 나타난 것. (p=0.05)

a : 의복착용자의 인상의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표 2> 최종 의미미분척도^a의 내용

형용사쌍들		
1. 여성적이다-남성적이다	13. 내향적이다-외향적이다	25. 딱딱하다-부드럽다
2.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14. 깔끔하다-깔끔하다	26. 정숙하다-정숙하지못하다
3. 사치스럽다-검소하다	15.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	27. 격식을 차렸다-격식을 차리지않았다
4. 적극적으로-소극적이다	16. 동적이다-정적이다	28. 소심하다-대담하다
5. 활발하지않다-활발하다	17. 귀엽다-성숙하다	29. 매력적이다-매력없다.
6. 현대적이다-고전적이다	18. 평범하다-특이하다	30. 나이들어보인다-어려보인다
7. 약하다-강하다	19. 어둡다-밝다	31. 단정하다-단정하지않다
8. 멋없다-멋있다	20. 자신감있다-자신감없다	32. 활동적이다-비활동적이다
9. 깨끗하다-지저분하다	21. 사무적이다-사무적이지않다	33. 안전하다-안전하지않다
10. 낭만적이다-낭만없다	22. 촌스럽다-세련되었다	34. 산뜻하다-우중충하다
11. 억세다-유연하다	23. 신중하다-경박하다	35. 눈에 띈다-눈에 띄지않는다.
12. 섹시(sexy)하다-섹시하지않다	24. 수수하다-화려하다	36. 마음에 든다-마음에 들지않는다.
		37. 인상이 좋다-인상이 좋지않다.

a : 3개 실험에서 모두 동일한 분포임

(인상차원)으로 한 1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이, 의복유형은 깔끔한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인상차원들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의복유형은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4,13)}은 확인되었다.

3. 2차 예비실험

2차 예비실험은 임의표집된 여대생 150명을 대상으로 1989년 10월에 실시되었다.

1) 실험도구 개발

2차 예비실험의 자극물에서 조작된 독립변인은 의복유형(suit, dress, pants-blouse)과 의복 색채(검정, 흰색, 빨강, 파랑, 노랑)이며, 실험은 피험자간 2원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2차 예비실험결과, 의미미분척도에서는 10개 형용사쌍이 다시 제외되었고 총 37개 형용사쌍들로 구성된 최종의미미분척도(<표 2> 참조)가 개발되었다.

2) 실험 결과

Scree plotting을 통하여 얻은 타당한 요인수는 5개였으며 가장 타당한 요인분석의 모형은 주성분 모형이었다. 주성분 모형의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들은 <표 1>과 같이 능력-활동성, 품위, 주의집중성, 매력-화친평가, 깔끔함-호오평가 등이었다. 의복유형 및 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의복유형은 깔끔함-호오평가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인상차원에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의복색채는 품위, 깔끔함-호오평가, 주의집중성 차원에, 의복유형과 색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깔끔함-호오평가차원에서만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VI. 본 실험

1. 실험 방법

1) 피험자

본 실험은 200 여명의 임의 표집된 여대생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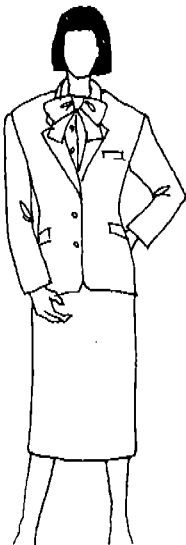
로 1989년 11월에 실시되었다.

2) 실험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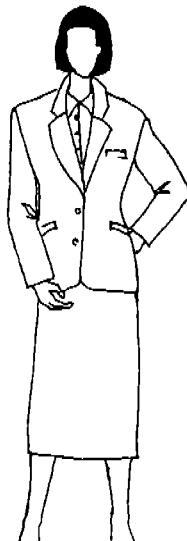
본 실험은 의복유형을 block요인으로 하여 의복유형(suit, dress, pants-blouse)에 따른 독립적인 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의복유형을 block요인으로 본 실험을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2차 예비실험을 통하여 의복유형이 착용자의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복유형과 의상디자인의 다른 요소들을 한 자극물 내에서 독립변인으로서 동시에 조작한다면 의상디자인 요소들의 영향은 대부분 의복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로서만 나타나리라고 예상되었으며, 그럴 경우 의상디자인요소가 착용자의 인상에 단독적으로 미치는 영향(제 II부에서 보고하기로 함)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복유형에 따른 3개 본 실험의 모든 변인조작, 실험처치 및 구성은 동일하였다.

3) 독립변인과 자극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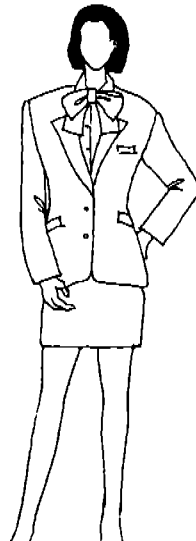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의복색채(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하의 길이(긴 길이, 짧은 길이), collar



리본칼라 블라우스
+ 긴 스커트



서츠칼라 블라우스
+ 긴 스커트



리본칼라 블라우스
+ 짧은 스커트



서츠칼라 블라우스
+ 짧은 스커트

[그림 1] 본 실험에 사용된 suit착용자의 자극물
(의복색채는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음)

유형 (리본, 셔츠칼라) 등의 3개로서 이는 3개 본 실험에서 동일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1명의 여자 의복착용자 모습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그림 1]참조)이었으며, 독립변인의 조합에 의해 총 60개(3개 실험에 각 20개)가 제작되었다. 모든 자극물에서 의복 착용자의 얼굴모습, 자세, 헤어스타일은 통제되었고 자극물은 어느 20대 여성이 외출한 모습이라는 지시문과 함께 제시되었다.

4) 설문지

본 실험의 설문지는 37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최종 의미미분척도, 피험자의 학년, 전공을 묻는 문항, 자유 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실험설계

본 실험은 3개 실험에서 모두 5개 의복색채×2개의 길이×2개 칼라유형=20개 조합의 3원 요인설계로 설계되었다. 또한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각 피험자는 3개 실험에 걸쳐 각 1개씩의 조합에 무선배치되었으며, 각 피험자는 3개씩의 자극물에 응답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미미분 척도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인분석(주성분 모형, Varimax회전법)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인상의 차원으로 간주하였으며 각 요인점수(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됨)들을 각 인상차원의 값으로 간주하였다.

의상디자인 요소가 suit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이 인상차원들에 미친 영향을 3원변량분석하고, 그 결과 독립변인 간의 유의적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를 다시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MCA)로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인들의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 본 실험의 결과 및 논의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구조

<가설 1>은 3개 실험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

<표 3> Suit 착용자의 인상의 차원구조^a

요인 I : 능력-활동성	요인 부하치	요인 II : 깔끔함-평가	요인 부하치	요인 III : 품위	요인 부하치
의존적-독립적이다	.61	지저분하다-깨끗하다	.74	귀엽다-성숙하다	.67
소극적-적극적이다	.75	깔끔하지않다-깔끔하다	.71	사무적이지않다-사무적이다	.74
활발하지않다-활발하다	.73	단정하지않다-단정하다	.56	경박하다-신중하다	.55
고전적-현대적이다	.54	마음에 안든다-마음에든다	.56	부드럽다-딱딱하다	.61
약하다-강하다	.58	인상이 좋지않다-인상이 좋다	.72	어려보인다-나이들어보인다	.57
유연하다-딱세다	.53		11.9%		4.3%
내향적-외향적이다	.73	요인 IV : 외모-매력	요인 부하치	요인 V : 주의집중성	요인 부하치
보수적-진보적이다.	.71	사치스럽다-검소하다	-.71	어둡다-밝다	.72
정적-동적이다	.79	멋없다-멋있다	.62	눈에 띈다-눈에 띄지않는다	-.53
자신감없다-자신감있다	.67	Sexy하다-Sexy하지 않다	-.56		
소심하다-대담하다	.66	매력없다-매력적이다	.57		
비활동적-활동적이다	.75				
양절하다-양전하지않다	.64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9.2%		3.6%		3.1%

요인들의 총 설명력 --- 52.1%

a : 2개 이상의 요전성격을 지닌 8개 형용사쌍을 제외됨

<표 4> Dress 착용자의 인상의 차원구조*

요인 I : 능력-활동성	요인 부하치	요인 II : 주의집중성	요인 부하치	요인 III : 매력-평가	요인 부하치
적극적-소극적이다	.77	Sexy하다-Sexy하지않다	-.69	촌스럽다-세련되었다	-.80
독립적-의존적이다	.77	수수-화려하다	.66	마음에든다-들지않는다	.78
약하다-강하다	-.70	평범-특이하다	.64	멋없다-멋있다	-.69
내향적-외향적이다	-.69	사치스럽다-검소하다	-.57	인상이좋다-좋지않다	.66
자신감있다-자신감없다	.70	눈에 띈다-띄지않는다	-.55	매력적이다-매력없다	.63
동적-정적이다	.70	정속하다-정속하지않다	.53		
활발하지않다-활발하다	-.64				
소심-대담하다	-.64				
진보적-보수적이다	.64				
활동적-비활동적이다	.54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31.4%		12.5%		7.0%
요인 IV : 품 위	요인 부하치	요인 V : 깔끔함	요인 부하치	요인 VI : 부드러움	요인 부하치
귀엽다-성숙하다	-.74	깔끔하다-깔끔하지않다	.72	딱딱하다-부드럽다	-.82
나이들어 보인다-어려보인다	.73	깨끗-지저분하다	.74	여성적이다-남성적이다	.69
격식차렸다-격식차리지않았다	.60	단정하다-단정하지않다	.57	역세다-유연하다	-.60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5.3%		3.6%		2.9%

요인들의 총 설명력--62.7%

α : 2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지닌 7개 항목사쌍을 제외됨

을 때에 나타나는 의복유형에 따른 인상차원들과, 3개 실험자료를 통합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전반적 인상차원의 내용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본 실험의 자료를 요인분석하기에 앞서, Kaiser Meyer-Olkin의 표본의 적합성 측정치 및 Bartlette test값을 통하여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3개 실험자료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ree plotting을 통해 검토한 결과 본 실험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모든 요인수는 타당한것으로 나타났다.

① 의복유형별로 분석한 인상의 차원구조

Suit착용자의 인상차원구조 : suit착용자의 인상에서는 <표 3>와 같이 능력-활동성, 깔끔함-평가, 품위, 외모-매력, 주의집중성 순의 5개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가장 설명력이 큰것은 능력-활동성 차원(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29.2%) 이었다.

Dress착용자의 인상차원구조 : <표 4>와 같이 dress 착용자의 인상에서는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매력-평가, 품위, 깔끔함, 부드러움 순의 6개 차원이 도출

되었으며, 인상의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것은 능력-활동성(31.4%) 차원이었다.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차원구조 : <표 5>과 같이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서는 평가-외모, 품위,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부드러움, 적극성 순의 6개 차원이 나타났는데, 인상의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평가-외모 차원(22.4%)이며, 이는 suit 및 dress 착용자에서 능력-활동성 차원의 설명력이 가장 컸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uit 및 dress착용자에서는 깔끔함 차원에 포함되었던 항목사쌍들이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서는 (깔끔함 차원이 없어지고)평가-외모 차원에 포함되었으므로 평가-외모차원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의복착용자의 전반적 인상차원구조

의복착용자의 전반적 인상차원이란 의복유형에 따른 3개 실험자료를 통합하여 요인분석하였을때에 나타나는 인상의 차원들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

<표 5> Pants-Blouse 착용자의 인상의 차원구조*

요인 I : 평가-외모	요인 부하치	요인 II : 품 위	요인 부하치	요인 III : 능력-활동성	요인 부하치
마음에 든다-들지 않는다	.83	귀엽다-성숙하다	-.75	약하다-강하다	.71
인상이 좋다-좋지않다	.82	나이들어-어려보인다	.73	내향적-외향적이다	.68
산뜻-우중충하다	.69	사무적이다-사무적이지않다	.70	진보적-보수적이다	-.65
깔끔하다-깔끔하지않다	.64	정숙하다-정숙하지않다	.62	동적-정적이다	-.54
깨끗-지저분하다	.64	격식차렸다-격식을차리지않았다	.59	활동적-비활동적이다	-.50
튼스럽다-세련되었다	-.63	신중-경박하다	.56	안전하다-안전하지않다	.50
멋있다-멋없다	-.62	단정하다-단정하지않다	.51		
매력적이다-매력없다	.62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2.4%		14.6%		7.7%
요인 IV : 주의집중성	요인 부하치	요인 V : 부드러움	요인 부하치	요인 VI : 적극성	요인 부하치
평범하다-특이하다	-.78	딱딱하다-부드럽다	-.79	적극적-소극적이다	.72
수수-화려하다	.77	역세다-유연하다	-.72	독립적-의존적이다	.64
사치스럽다-검소하다	-.66	여성적-남성적이다	.70	현대적-고전적이다	.55
Sexy하다-Sexy하지 않다	-.55	남만적-남만없다	.55	자신감있다-없다	.51
눈에 쏠린다-눈에 띄지 않는다	-.50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5.8%		4.0%		3.2%
요인들의 총 설명력--57.7%					

α: 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지닌 3개 행동사쌍은 제외됨

다.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능력-활동성 요인(33.2%)이며 그 다음은 품위,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깔끔함 차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능력-활동성 차원: 1, 2차 예비실험결과와 본 실험결과에서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상차원은 능력-활동성 차원이며, 본 연구에서는 능력과 활동성이 하나의 인상차원으로 통합되어 도출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능력과 활동성이 하나의 인상차원으로 묶여 나타난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Osgood등⁹⁾, 박혜선¹²⁾등의 연구결과에서는 능력과 활동성이 별개의 인상차원으로 분리되어 도출되었는데, Osgood등⁹⁾의 연구에서는 행동사 또는 여러가지 개념이 인상형성의 정보로 제시되었으며, 박혜선¹²⁾이 사용한 의복자극물도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의복변인이 체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었다. 반면 본 연구의 1, 2차 예비실험과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각기 다른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능력과 활동성이 하

나의 인상차원으로 묶여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는 인상형성을 위해 지각자에게 주어진 정보가 선행연구들에서와는 달랐으며 이러한 정보의 차이로 인해 인상형성의 후속단계들에서 차이가 생기고, 인상형성의 결과도 달라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인상형성 과정의 관점에서는, 능력-활동성 차원이 도출된 배경에 대하여 Schneider등이 제시한 인상형성의 6개 단계⁹⁾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의복자극물에 의한 인상형성은 6개 단계중 제 2단계인 즉각적 반응 및 고정 판단에 따른 판단에서 대부분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후속 단계인 피지각자의 특성, 태도, 능력, 행동에 대한 판단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능력과 활동성이 미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인상차원으로 묶여서 도출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의복착용자의 모습을 보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응답하게한 결과인 <표 7>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즉 <표 7>과 같이 지각자가 자유응답한 내용의 대부분은 3개 의복유형에서 모두, 의복착용자에 대

<표 6> 본 실험자료를 통합한 요인분석 결과: 주성분 모형사용*

요인 I: 능력-활동성	요인 부하치	요인 II: 품위	요인 부하치	요인 III: 주의집중성	요인 부하치
유연하다-역세다	.74	사무적이지않다-사무적이다	.80	수수하다-화려하다	.79
약하다-강하다	.73	격식을차리지않았다-격식을차렸다	.79	사치스럽다-검소하다	-.71
내향적이다-외향적이다	.73	어려보인다-나아들어보인다	.76	평범하다-특이하다	.69
의존적이다-독립적이다	.70	귀엽다-성숙하다	.72	Sexy하다-Sexy하지 않다	-.65
소극적-적극적이다	.70	정숙하지않다-정숙하다	.64	눈에 띈다-눈에 띄지않는다	-.56
		경박하다-신중하다	.61		
		단정하지않다-단정하다	.53		
정적이다-동적이다	.69	13.4%		8.8%	
보수적이다-진보적이다	.67	요인 IV: 평가-매력	요인 부하치	요인 V: 깔끔함	요인 부하치
비활동적-활동적이다	.66	마음에들지않는다-마음에든다	.82	깔끔하지않다-깔끔하다	.70
자신감없다-자신감있다	.65	인상이좋지않다-인상이 좋다	.81	지저분하다-깨끗하다	.65
활발하지않다-활발하다	.64	촌스럽다-세련되었다	.68	우중충하다-산뜻하다	.50
얕전하다-얕전하지않다	.62	멋없다-멋있다	.67	어둡다-밝다	.50
고전적이다-현대적이다	.61	매력없다-매력적이다	.60		
부드럽다-딱딱하다	.59				
소심하다-대담하다	.59				
여성적이다-남성적이다	.56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33.2%	5.1%		3.0%	

요인들의 총 설명력 --- 63.5%

α: 2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지닌 1개 형용사쌍은 제외됨

한 정서 반응(예: '멋있다', '화사하다', '촌스럽다', '보기좋다', '보기싫다', '좋하다')과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 판단(예: '은행원', '주부', '직장여성', '제복', '여대생', '주부', '여고생') 등이었으므로 이는 의복은 인상형성의 제 1, 2단계인 자극의 유목화, 즉각적 정서반응 및 고정관념에 따른 판단 등에서 자극 정보로서 활용된다는 Schneider등⁹⁾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셋째, 능력-활동성의 인상차원이 도출된 심리적 기제는 내현성격체계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¹⁰⁾의 입장에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내현성격체계에 의하여 의복착용자와, 능력에 관련된 특성, 활동성에 관련된 특성들을 연관지었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의복행동을 설명한 DeLong²⁰⁾은 지각자는 과거경험을 통하여 의복형태와 직접적 의미를 연관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추론된 상징적

의미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연관시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피험자가 과거경험을 통하여 능력 및 활동성에 관련된 의미를 자극물속의 의복에 동시에 연관시켰으며, 그 결과 능력과 활동성이 통합된 인상차원이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평가-매력, 품위, 깔끔함의 인상차원: 본 연구 결과에서는 평가-매력 차원 외에도 품위, 깔끔함 차원등 상당히 평가적인 형용사쌍들로 구성된 인상차원들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평가적 인상이 여러개의 인상 차원들로 분리되어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Rosenberg, Nelson, Vivekananthan²¹⁾은 인상의 평가차원은 사회적 평가와 지적 평가차원의 다차원적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하였고 조근호¹⁹⁾은 인상의 평가차원은 호오평가와 화친평가의 2원적 구조이며 이는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강혜원⁴⁾은 한복, 양복 착용자의

<표 7> 의복착용자에 대한 자유응답결과^{a)}

의복 유형	Collar유형	하의길이	의복 색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Suit	Shirt collar	짧은 Skirt	화려하다	은행원제복	환하다 대학축제	초여름 직장여성	제복 평범하다
		긴 Skirt	촌스럽다 특수직종	은행원 여직원 평범하다		주부 초여름	장례식 최치하다 직장여성
	Ribbon collar	짧은 Skirt	아하다 연예인 엘리베이터 안내양	20대 초반 의 여직원	귀엽다 화사해서 좋다	멋있다	제복 아하다 그런대로 세련되었다
		긴 Skirt	눈에 띄는 색상 화려하다	은행원 주부	화사하다	직장여성 주부 여름	멋장이 성숙미 최치하다
Dress	Shirt collar	짧은 Dress	어린애같다 화려하다	제복 여고생 촌스럽다	옛날 옷 환한 느낌	간호원 깨끗함	촌스럽다 제복
		긴 Dress	촌스럽다	흉하다	촌스럽다	보기싫다 촌스럽다 간호원	장례식 최치하다 우중충하다
	Ribbon collar	짧은 Dress	귀엽다 보기좋다	여대생	귀엽다 어려보인다 발랄하다	깨끗하다 귀엽다	
		긴 Dress	화려하다	주부	촌스럽다	주부 깨끗하다	나이든 여자 최치하다 장례식
Pants blouse	Shirt collar	짧은 Pants	여대생 눈에 띈다 편해보인다	여대생 피크닉 청바지 멋있다	바캉스	레니스북 여름	
		긴 Pants	여대생 바지색상이 아하다	여대생 청바지 보기좋다 편한차림	촌스럽다	여대생 운동복	여대생 최치하다 편해보인다
	Ribbon collar	짧은 Pants	여대생 아하다	상하의가 안어울린다		이상하다	촌스럽다
		긴 Pants	젊은 여자 화려한사람 또는 직업 성격	활동적이다 여대생 직업여성	활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직업여성	활동적인 외출복 직업여성

a) 각 실험조합에 배치된 10명씩의 피험자 중 총 3명 이상이 응답한 내용만을 제시하였음.

인상의 6개 차원 중 평가적 성격을 띤 인상차원은 평가, 품위, 친화 등 3개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평가적 인상차원의 다중구조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평가적 인상은 외모의 매력, 품위, 깔끔함 등에 각기 관련된 3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여러개의 평가적 인상차원들은 <표 7>에서와 같이 의복착용자에 대한 자유응답내용과도 일관된 양상을 나타낸다. 즉 <표 7>에 나타난 즉각적 정서반응의 응답들은 '촌스럽다', '귀엽다', '멋있다', '최척하다', '멋장이', '화사하다', '홍하다', '깨끗하다', '보기싫다', '보기

좋다', '이상하다', 등이었는데, 이중 외모의 매력에 관한 것은 '멋있다', '홍하다', '멋장이', '보기좋다', '보기싫다', '이상하다', 품위에 관한 것은 '촌스럽다', '귀엽다', '깨끗하다' 등으로 분류되어,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③ <가설 1>의 검증 결과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복유형별 인상을 분석한 경우와 의복유형을 통합하여 인상을 분석한 경우 모두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들은 평가, 능력, 활동성의 3개 기본 차원들이 서로 통합되어 도출되거나 한 개의 차원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 양상을 나타내었

<표 8> Suit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원 변량분석	주 효과	28.89	6	4.82	8.74	.000
	의복색채	5.73	4	1.43	2.60	.038
	Skirt 길이	21.25	1	21.25	38.56	.000
	Collar 유형	1.91	1	1.91	3.46	.065
	2원 상호작용 효과	5.03	9	.56	1.02	.430
	색채×Skirt 길이	3.79	4	.95	1.72	.148
	색채×Collar 유형	1.09	4	.27	.49	.741
	Skirt 길이×Collar유형	.14	1	.14	.26	.613
	3원 상호작용 효과	2.87	4	.72	1.30	.271
	오차	98.09	178	.55		
전체	134.89	197	.69			
MCA	총 평균($\bar{Y}_{..}$)=0.25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b		ETA 값 ^c
	의복색채 : 빨강	40		-.16		
	파랑	40		.31		
	노랑	39		-.16		
	하양	39		-.01		
	검정	40		.02		.21
	Skirt 길이 : 짧은것	98		.33		
	긴 것	100		-.32		.40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8		.10		
ribbon collar	100		-.09		.12	
Multiple R ² =.21						
Multiple R=.46						

a: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있고 활동적임을 의미한다.

b: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 간의 차($\bar{Y}_j - \bar{Y}_{..}$)

c: ETA 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frac{1}{2}}$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복착용자의 인상에는 전통적인 인상의 3대 기본 차원인 평가, 능력, 활동성 차원이 포함되어있음이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의상디자인 요소들이 suit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③ <가설 2-a>의 검증 결과

앞서의 요인분석결과에서 의복착용자의 전반적 인상 차원구조로 도출된 5개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능력-활동성 차원 : <표 8>와 같이 능력-활동성 차원

에는 suit의 색채와 스커트 길이가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suit착용자의 인상의 능력-활동성 차원은 suit의 색채와 스커트 길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CA의 평균값 차에 의하면, 파란색 suit 및 짧은 skirt의 suit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단독효과를 비교할수 있는 수치인 Eta계수의 자승값은 skirt길이 변인의 경우에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인상의 능력-활동성 차원에는 suit의 색채보다는 skirt길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다.

품위차원 : <표 9>과 같이 품위차원에는 suit의 skirt

<표 9> Suit 착용자의 품위 인상차원^a에 의상디자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원 변량분석	주 효과	10.59	6	1.77	3.86	.001
	의복색채	3.75	4	.94	2.05	.090
	Skirt 길이	6.81	1	6.81	14.86	.000
	Collar 유형	.09	1	.09	.20	.657
	2원 상호작용 효과	3.12	9	.35	.76	.657
	색채×Skirt 길이	.41	4	.10	.22	.926
	색채×Collar 유형	2.05	4	.51	1.12	.348
	Skirt 길이×Collar 유형	.64	1	.64	1.40	.239
	3원 상호작용 효과	.48	4	.12	.26	.903
	오차	81.51	178	.46		
	전체	95.69	197	.49		
MCA	총 평균($\bar{Y}_{..}$)=0.89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b		ETA 값 ^c
	의복색채 : 빨강	40		-.07		
	파랑	40		.20		
	노랑	39		-.21		
	하양	39		.00		
	검정	40		.07		.20
	Skirt 길이 : 짧은것	98		-.19		
	긴 것	100		.18		.27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8		.02		
ribbon collar	100		-.02		.04	
Multiple R ² = .11						
Multiple R = .33						

a : 점수가 높을수록 사무적인, 격식차림, 나이들어보임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 간의 차 ($\bar{Y}_{j.} - \bar{Y}_{..}$)

c : Eta 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건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1/2}$

<표 10> Suit착용자의 주의집중성 인상차원^a에 의상디자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원 변량분석	주 효과	49.73	6	8.29	12.25	.000
	의복색채	18.85	4	4.71	6.97	.000
	Skirt 길이	28.22	1	28.22	41.72	.000
	Collar 유형	2.29	1	2.29	3.39	.067
	2원 상호작용 효과	5.38	9	.60	.88	.541
	색채×Skirt 길이	3.42	4	.86	1.27	.285
	색채×Collar 유형	1.89	4	.47	.70	.593
	Skirt 길이×Collar 유형	.07	1	.07	.10	.747
	3원 상호작용 효과	1.86	4	.46	.69	.602
	오차	120.41	178	.68		
	전체	177.37	197	.90		
MCA	총 평균($\bar{Y}_{..}$)=0.25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b		ETA 값 ^c
	의복색채 : 빨강	40		.56		.33
	파랑	40		-.31		
	노랑	39		-.14		
	하양	39		-.21		
	검정	40		-.09		
	Skirt 길이 : 짧은것	98		.38		.40
	긴 것	100		-.38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8		-.11		.12
ribbon collar	100		.11			
Multiple R ² = .28						
Multiple R = .53						

a : 점수가 높을수록 화려함, 특이함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 간의 차($\bar{Y}_j - \bar{Y}_{..}$)

c : $ETA \text{ 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frac{1}{2}}$

길이만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긴 skirt의 suit착용자는 짧은 skirt의 suit착용자보다 더 품위있고 사무적이며 격식을 차렸고 나이든 사람으로 (제1보의 품위차원의 형용사쌍 내용을 참고 바람)지각되었다.

주의집중성 : <표 10>과 같이 주의 집중성 차원에는 suit의 색채와 skirt길이가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suit착용자의 인상의 주의집중성 차원은 suit의 색채와 skirt길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또한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빨간색 suit, 짧은 skirt의 suit착용자가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됨을 알수 있다.

평가-매력차원 : <표 11>와 같이 평가-매력차원에는 suit의 skirt길이만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짧은 skirt의 suit착용자는 긴 skirt의 suit착용자보다 더욱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더 매력적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깔끔함 차원 : <표 12>와 같이 깔끔함 차원에는 suit의 색채, skirt길이 등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노란색 suit, 짧은 skirt길이의 suit착용자는 더 깔끔하고 밝은 인상으로, 검정색 suit와 긴 skirt의 suit착용자는 더욱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표 11> Suit착용자의 평가-매력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변량분석	주 효과	9.28	6	1.55	1.76	.110	
	의복색채	4.03	4	1.01	1.15	.337	
	Skirt 길이	4.92	1	4.92	5.60	.019	
	Collar 유형	.38	1	.38	.43	.512	
	2원 상호작용 효과	4.17	9	.46	.53	.853	
	색채×Skirt 길이	.80	4	.20	.23	.922	
	색채×Collar 유형	2.81	4	.70	.80	.527	
	Skirt 길이×Collar 유형	.54	1	.54	.61	.437	
	3원 상호작용 효과	1.67	4	.42	.47	.756	
	오 차	156.55	178	.88			
	전 체	171.67	197	.87			
	MCA	총 평균($\bar{Y}..$)=0.10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b		ETA 값 ^c
의복색채: 빨강		40		-.06			
파랑		40		-.19			
노랑		39		-.08			
하양		39		.13			
검정		40		.20		.15	
Skirt 길이: 짧은것		98		.16			
긴 것		100		-.16		.17	
Collar 유형: shirt collar		98		.04			
ribbon collar	100		-.04		.05		
Multiple R ² = .05							
Multiple R = .23							

a: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매력적임을 의미한다.

b: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 간의 차($\bar{Y}_j. - \bar{Y}..$)

c: ETA 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frac{1}{2}}$

② <가설 2-a>의 검증결과에 대한 논의

Suit의 skirt길이의 영향: Suit의 skirt길이는 5개의 인상차원에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깔끔함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인상차원에서 모두, skirt길이 변인이 갖는 Eta계수의 자승값은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skirt길이는 suit착용자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짧은 skirt의 suit착용자는 긴 skirt의 suit착용자보다 더욱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능력-활동성 차원), 덜 사무적이고 더 어려보이며 (품위 차원), 더 화려하고 눈에 띄며 (주의집중성 차원), 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며 (평가-매력 차

원), 더 밝고 깔끔한 사람(깔끔함 차원)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skirt길이는 suit착용자의 인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상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의 길이는 실루엣의 주요 결정요소이며 실루엣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시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Delong²⁰⁾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Suit의 색채의 영향: suit의 색채는 suit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깔끔함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5개 색채중 파란색 suit의 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노란 suit착용자는 가장 깔끔하며 밝은

<표 12> Suit착용자의 깔끔함 인상차원^a에 의상디자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변량분석	주 효과	18.74	6	3.12	4.49	.000	
	의복색채	10.61	4	2.65	3.81	.005	
	Skirt 길이	6.58	1	6.58	9.45	.002	
	Collar 유형	1.91	1	1.55	2.23	.137	
	2원 상호작용 효과	8.35	9	.93	1.33	.223	
	색채×Skirt 길이	2.57	4	.64	.92	.451	
	색채×Collar 유형	4.63	4	1.16	1.66	.161	
	Skirt 길이×Collar 유형	1.04	1	1.04	1.50	.223	
	3원 상호작용 효과	.31	4	.08	.11	.978	
	오차	123.82	178	.70			
	전체	151.22	197	.77			
	MCA	총 평균($\bar{Y}..$)=0.05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b	ETA 값 ^c		
		의복색채 : 빨강	40	.02	.26		
파랑		40	-.01				
노랑		39	.39				
하양		39	-.05				
검정		40	-.34				
Skirt 길이 : 짧은것		98	.18	.21			
긴 것		100	-.18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8	-.09	.11			
ribbon collar		100	.09				
Multiple R ² = .12							
Multiple R = .35							

- a : 점수가 높을수록 깔끔함을 의미한다.
-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bar{Y}_{j.} - \bar{Y}..$)
- c : $ETA \text{ 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frac{1}{2}}$

인상, 빨간 suit착용자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 검정 suit착용자는 가장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희선과 박화순¹⁴⁾등의 파란색은 청춘, 청년, 희망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태양과 불을 노란색은 빛, 젊음, 쾌활함을 검정색은 침묵, 불길, 슬픔을 상징한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

기타 영향들 : 실험의 세번째 독립변인인 blouse의 칼라유형은 의상디자인 요소중 선 및 형태의 일부인 detail에 해당되는 것으로, suit착용자의 어떠한 인상차원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칼라는 여러가지 이미지를 만들며, 얼굴과 가깝기

때문에 눈에 잘 띄므로 디자인의 포인트로서 중요하다 고 한 오희선과 박화순¹⁴⁾, Tate¹⁵⁾등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과연 blouse의 collar유형이 suit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가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suit착용자의 인상에 있어서는 의상디자인 요소들간의 유의적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VI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은 평가, 능력, 활동성의 전통적인 3대 인상차원을 포함하였으며, 평가적 인상은 여러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서, 능력과 활동성은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되어 도출되었다. 의복착용자의 전반적 인상에서는 능력-활동성, 품위,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깔끔함 등의 5개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suit착용자의 인상에서는 능력-활동성, 깔끔함-평가, 품위, 외모-매력, 주의집중성의 5개 차원이, dress착용자에서는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매력-평가, 품위, 깔끔함, 부드러움의 6개 차원이, pants-blouse착용자에서는 평가-외모, 품위,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부드러움, 적극성의 6개 차원이 각각 도출되었다.

둘째, 의복착용자의 모습을 자극물로 제시한 인상형성은 자극의 유목화, 즉각적 정서반응, 고정관념에 따른 판단 등의 초기 인상형성단계에 치중되었다. 특히 능력과 활동성이 하나의 인상차원으로 통합되어 도출된 것은 의복자극물만으로는 의복착용자의 태도, 특성, 능력, 행동에 대한 후속단계의 인상형성은 구체화되지 못하는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는 의복은 인상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중요단서로서 활용된다고 한 Schneider 등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셋째, 의복착용자의 평가적 인상은 매력, 품위, 깔끔함에 관한 여러 차원으로 분리되어 도출되었는데 이는 의복자극물이 능력, 활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평가적 인상은 의복단서만 제시된 경우에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판단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네째, 3개 독립변인 중 suit의 skirt길이는 착용자의 인상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상디자인요소이다.

다섯째, suit의 색채는 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전체 인상 중 특히 능력과 활동성, 주의집중성, 깔끔함 차원들에는 skirt길이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suit와 함께 착용한 blouse의 칼라유형은 suit착용자의 인상에 아무런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이는 칼라는 디자인의 포인트라는 전통적인 의상디자인 이론과는 불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독립변인(의상디자인요소)들의 종류와 수준, 독립변인이 조작된 의복유형 등을 몇 개로 국한시킨 점, 둘째, 실제 의복착용자의 모습이 아닌 그림 자극물을 제시한 점 등이다. 따라서 제언으로는, 의복유형 및 독립변인의 종류와 수준을 확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의복착용자의 모습을 자극물로 제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의미미분척도를 수정, 보완해 나아가므로써 일반적인 의복착용자의 인상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Ssears, D.O., Freedman, J.L. & Pepleau, L.A., *Social Psychology (5th ed.)*, N.J., Prentice-Hall, Inc.(1985)
- 2) 이인자, 송선옥, 의복과 인물이 첫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6(1), 27-38 (1982)
- 3) Conner, B.H., Peters,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1975)
- 4) 강혜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 -한복을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1988)
- 5)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1946)
- 6) Schneider, D.J., Hastorf, A.H. & Ellsworth, P.C., *Person Perception(2nd ed.)*, Mass., Addison-Wesley. (1979)
- 7) Lennon, S.J., Davis, L.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4), 41-48(1989)
- 8) Damhorst, M.L.,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8(2), 1-12, (1990)
- 9) Osgood, C., Suci, G.J. &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 of Illinois press, in Compton, N.H., Hall, O.A.(1972),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279-281(1957)
- 10) Kaizler-Evans, K. Damhorst, M.L., Impression Formation: Use of Descriptors of Personal Trai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903-906(1978)
 - 11) Delong, M.,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281-293(1980)
 - 12)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1982)
 - 13)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5(1), 10-16(1986)
 - 14) 오희선, 박화순,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47, 47-81, 128-129, 166-180(1994)
 - 15) Tate, S.L. *Inside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 & Row, 213-229(1977)
 - 16) KBS 한국색채연구소, 색채 I, KBS 문화사업단, 20, (1994)
 - 17) Mahannah, L.,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in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18)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1991)
 - 19) 조중호,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1986)
 - 20) Delong, M.R.,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33-136(1987)
 - 21)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283-294(1968)